

치킨·햄버거·커피...연말 안 오르는 게 없네

엔제리너스 2.7%, 롯데리아 버거류 2.2%, BBQ 1000~2000원 ↑ 식품·외식업계 성수기 일제히 가격 기습 인상 소비자들 눈총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간식 사주기도 겁 나네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치킨과 피자, 커피 등 식품·외식업계가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각종 모임들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린 탓에 소비자들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 인상 등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기 전 기습 인상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12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엔제리너스는 13일부터 커피류 일부 품목 가격을 평균 2.7% 인상한다.

가격 인상은 2015년 5월 이후 3년 7개월 만으로, 이번에 가격을 올리는 제품 종류는 17가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

노스몰(S) 사이즈는 4100원에서 4300원으로, 카페라떼는 4600원에서 4800원으로 각각 200원 오른다.

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료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 부득이하게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입장이지만 연말 각종 모임이 예정돼 있는 등 성수기를 앞두고 기습 인상에 나서 소비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이디야커피도 이달 1일부터 4년 2개월 만에 14개 품목의 가격을 전격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커피 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커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대형브랜드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원두에 이은 주요 재료인 우유의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존재해사다.

지난 8월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5년 만에 흰 우유 1L 제품의 가격을 3.6% 올렸고, 10월 남양우유가 우유 제품을 4.5% 인상했다. 커피를 비롯해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과제빵 업계에서도 전반적인 파장을 미치고 있다. 빙그레도 대표 제품인 ‘바나나맛우유’를 내년부터 소액자가 기준 1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롯데리아는 13일부터 버거류 제품 11종을 대상으로 평균 2.2%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제품에 따라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400원이 인상, 이에 따라 ‘데리버거’는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르고 ‘클래식치즈버거’는 4000원에서 4200원으로 오른다. 불과 4개월 전인 8월 ‘원재료 가격 상승’을 구실로 소프트콘 가격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올렸던 롯데리아가 연말 성수기 또다시 가격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 서민들의 대표적인 간식인 치킨 역시 이제 ‘2만원 시대’를 맞고 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는 지난달 대표 제품 ‘황금올리브’를 포함해 ‘썬프라이드’와 ‘자메이카 톨다리 구이’를 각각 1000~2000원 올렸다. 치킨업계가 2000원 안팎의 배달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만원이 넘는 가격이다. 특히, 이달부터 치킨이나 피자를 시킬 때 ‘서비스’로 달려오는 업소용 코카콜라 제품까지 가격이 올랐다.

농심도 ‘새우깡’을 비롯해 19개 제품의 출고 가격을 지난달 6.3% 인상하는 등 성수기인 연말에 맞춰 식품·외식업계가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수요를 겨냥한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2.57 (+29.60)	↑ 금리(국고채 3년)	1.80 (+0.01)
↑ 코스닥	676.48 (+15.47)	↓ 환율(USD)	1128.50 (-1.60)

보해양조 숙취해소음료 ‘간개무랑’ 출시

음금 등 7가지 성분 담아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숙취해소음료 ‘간개무랑’을 새롭게 출시한다. 연말 송년회 자리가 많은 이들에게 숙취해소음료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양조가 오는 13일 출시하는 ‘간개무랑’은 술을 제일 잘 아는 소주회사가 만든 숙취해소 음료다. 지난 1950년 설립 이후 68년 동안 주류전문기업으로 발전해온 보해는 술을 만드는 것은 물론 숙취해소에 관한 노하우도 풍부하다.

간개무랑은 보해가 가진 숙취해소 노하우를 모두 담은 음료로서 알코올 분해 효과가 뛰어난 밀크씨슬과 울금 등 7가지 성분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성분을 담았다. 밀크씨슬과 울금 이외에 헛개나무 열매, 비타민 B6, 효모엑기스, 오리나무, 미배아대추추출물 등 간에 좋은 성분이 최적의 조합으로 들어갔다.

특히 30년 경력의 주류 및 식품 전문가인 보해 중앙연구소 임재휘 소장은 숙취해소 및 간 기능 개선에 관한 특허기술



(특허 제10-1301094호)을 활용해서 간개무랑을 탄생시켰다.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뜻을 지닌 ‘간개무랑’처럼 숙취해소 효과가 매우 뛰어난다는 자신감을 담아 ‘간개무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간개무랑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GS 25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으며, 출시기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해 중앙연구소 임재휘 소장은 “간개무랑은 술을 가장 잘 아는 보해가 만든 숙취해소 음료이다”며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회사 직원들이 마신다는 생각에 숙취해소와 간 기능 향상에 좋은 성분을 가득 담았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따뜻한 겨울나기 2000만원 후원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12일 광주공장 접견실에서 박래석 공장장장, 김대용 기아차노조 광주지회 수석부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2000만원을 서대석 서구청장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어려운 지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이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서구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광주 서구지역 노인 및 저소득층 4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노사 공동으로 매년 후원행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2억 8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은 12일 광주공장 접견실에서 박래석 공장장(왼쪽 두번째), 김대용 기아차노조 광주지회 수석부지회장,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경기침체 영향...광주 일하는 여성 늘었다

11월 취업자 33만6000명 1년전보다 4000명 증가

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출산·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곤 했던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들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구직에 나선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여성 취업자는 33만6000명으로 1년 전(33만2000명)보다 4000명 증가했다.

특히 여성 취업자 수는 올해(4월 33만6000명)를 제외하면 통계조사가 이뤄진 지난 1998년 1월 이후 가장 많다.

그동안 육아 문제 등으로 일을 그만뒀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구직 활동에 나선 게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당장, 취학 전 자녀를 돌보며 ‘일’과 ‘구직’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던 광주지역 여성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1년 전(49만5000명)보다 1만명 감소했다.

직장 없이 육아를 전담하던 여성들도 3만3000명으로 1년 전(4만2000명)에 견줘 9000명이나 줄었다. 이들 여성들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종사하

면서 광주지역 사업개입공공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지난달 3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이나 증가했다. 한편,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7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명 늘었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도 59.9%로 전년 동월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전남 취업자 수도 9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0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63.7%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동부권 중기 애로 해결 ‘찾아가는 수출상담반’ 운영

중기부 광주·전남청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전남동부사무소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수출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남 동부지역의 수출업체가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가 없도록 수출상담반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일괄·신속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광주·전남지방청은 그동안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했으나, 전남 동부지역의 수출 전문 인력 부재와 기업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으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수출상담반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 담당자, KOTRA 수출전문위원 그리고 고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해 수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경영에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사무소 수출전문위원은 수십년간 기업에 머물며 해외시장 개척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어 발굴에서 수출 계약서류 작성까지 현장감 있는 실무지원이 가능한 전문가다.

비즈니스지원단은 중소기업 경영에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검사국, 공명선거실천 특별점검 발대식

농협중앙회 전남검사국(국장 엄준현)은 12일 내내 3월 13일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실천 특별점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검사국은 오는 14일부터 내내 2월 말까지 3차에 걸쳐 걸쳐 관내 전 농·축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깨끗하고 공정한 조

합장 선거를 위해 농·축협의 ▲공명선거 추진태세 점검, ▲조합원관리 실태점검과 더불어 ▲취약시기 사고예방 점검까지 겸해 실시한다. 농·축협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적인 지도를 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용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김남에 류해린 맹세향 한재우 이태운 이갑선 장극수 김동준 우정민 윤소이 김명 | 극본 서보라 | 아나연 연출 박수철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